

전남, 전기요금 인상분 50% '긴급 지원'

예비비 73억 투입 농어업인 지원

지난해 4분기 사용분 대상 시·군서 접수

전남도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73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4분기 농어업 분야에 사용한 전기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유가와 각종 농어업 자재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에 큰 폭으로 인상돼 영농·영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

어업인의 고통 경감을 위한 지원 시책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12.3원 정액 인상했다.

인상률은 농사용(갑)은 74%,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4%로, 교육용·산업용 등 다른 산업의 평균 인상률(13.8%) 대비 매우 높아 농어업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육묘, 농작물 재배, 수산물양식업, 농수산물 저온창고, 농수산물 건조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등록된 사업장을 지원키로 했다.

전남지역 농가 14만6000가구가 평균 3만5000원을 지원 받고, 어가 24897가구가 평균 88만5000원을 지원받는 등 총 14만8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어가 지원 금액이 농가보다 많은 것은 어업 분야 양식장의 경우 순환 모터를 24시간 가동함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납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선 접수한 사업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최종 확인 후 3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유류비와 전기요금 정부 지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지만 추경 등에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배 기자

전남 교통사고 사망 200명 '역대 최저'

감소 인원 전국 1위...시설개선·캠페인 등 성과

전남지역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인원이 전국 18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7년 통계 관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인 200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1년(255명)보다 55명(21.6%)이 줄어든 것으로 교통사고 통계 관리를 시작한 197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높은 고령화 비율로 최근 3년 동안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가 151명에서 110명으로 41명(27.1%)이나 감소했다.

승합차 사고가 9명에서 4명으로 55.6%, 농기계 사고가 14명에서 7명으로 50.0%, 화물차 사고가 76명에서 54명으로 28.9%로 각각 줄었다.

/박종배 기자

도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과 교통안전 캠페인, 일반 도로에서의 암행순찰차 운영, 화물차 집중단속을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을 주민 보호구간 개선, 중앙분리대 설치, 역주행 방지시스템 설치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8358건으로 2021년(8732건)보다 374건(4.3%) 줄었고, 부상자는 1만2590명으로 2021년(1만3600명)보다 1010명(7.4%) 감소했다. 특히 65세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151명에서 110명으로 41명(27.1%)이나 감소했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1500만원 지급

전남선관위, 지방선거 금품제공 신고자 1000만원 등

선거범죄 신고자들이 선관위로 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졌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전남도제육회지방선거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용을 신고한 A씨에게는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 67만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2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배 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시험·검사능력 '적합'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환경분야 정도관리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수질·대기 등 8개 분야에서 '정도관리 검증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도관리 평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제도로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로 구분된다.

숙련도 시험은 8개 분야별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한다. 현장평가는 자격을 갖춘 평가위원이 3년마다 시험검사관을 방문해 정도관리 시스템 운영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 수질, 먹는물, 폐기물, 토양, 악취, 실내공기질, 환경유해인자 등 8개 분야 86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숙련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3월2일부터 4일까지 9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환경분야 시험실 전반에 대한 현장평가를 받았다.

/조일상 기자

광주시 2023 사업체 조사...18만7000여 곳 대상

내달 9일부터 3월 6일까지 종사자·매출액 등 10개 항목

광주시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 광주 사업체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2022년 말 기준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18만7000여 개)이며, 가구 내에

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대표자·조직형태·사업의 종류·종사자수·매출액 등 총 10개다. 광주시는 사업장 대표자·매출액 등 4개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해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면접 방

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전화, 배포조사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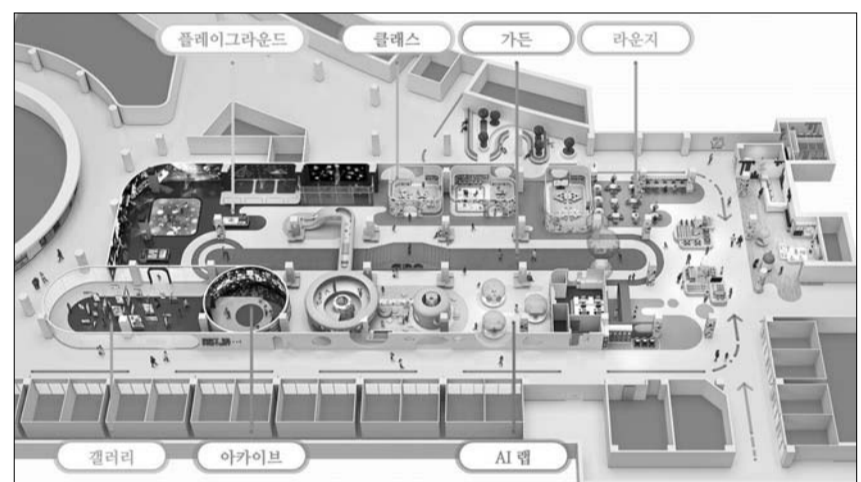
조사 결과는 12월 말 확정, 공표한다. 국가·지자체의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배달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통계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작성이 필수"라며 지역 사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다.

/조일상 기자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 어린이 체험 공간으로 변신 예고

동구 '빛의 뮤지엄' 체험관 조성...내년 6월 개관 목표



방문객 발길이 끊겨 쇠화된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가 어린이 전용 지능 발달 미술 콘텐츠로 채워진 미디어아트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6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금남로 지하상가 일부를 미디어아트 체험관으로 개편하는 '빛의 뮤지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예산 86억여 원을 들여 금남로 지하상가 2공구 내 39개 상가 부지(1500여㎡)를 미디어아트 체험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술을 주제로 어린이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지능을 발달시키는 미디어아트 주요 콘텐츠다. 선과 색깔을 통한 창작 기본 개념 교육 등 연령대별 아동 발달 특성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들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참여 아동이 직접 태블릿 PC에 그림을 그리면, AI가 이를 기반으로 아이의 성향 등을 분석한다는 콘텐츠도 들린다.

동구는 지난 19일 사업추진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구도심 지하상가를 관광 상품화해 관광객 방문을 늘린다는 목표다.

/김도지 기자

빛고을농업대학 신입생 모집...내달 8일까지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작목 재배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빛고을농업대학(제16기) 신입생 40명을 30일부터 2월8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교육과정 주제는 '지역 재배작목 육성과 신소득 작목 탐구'다. 개설학과는 특화작목과(30명), 신소득작목과(10명) 등 2개 학과이며, 2월부터 9월까지 매주 목요일 학과별 18회씩 총 100시간 운영한다.

'특화작목과'는 지역을 대표하는 작목을 특화 육성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작물(토마토, 애호박, 가지, 딸기 등)을 대상으로 환경·양액·생육관리 등 전문 재배기술을 교육한다.

'신소득작목과'는 기후위기에 대응,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탐구를 위해 아열대작물 기초재배기술 및 회계·세무·노무 등 농업경영교육 전반을 다룬 예정이다.

교육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이메일(kanjin530@korea.kr) 또는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해 광주 농업인이 미래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